



서울캠 미술대학 뒤편에는 각 건물에서 모아진 쓰레기를 분리수거 작업하는 폐기물 수거장이 있다.

(사진=이봄 기자)

버릴 곳 없는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부족 개선 방안 수립 시급

이봄 기자 lbom.kr@khu.ac.kr

분리수거 문제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서울캠)에는 대부분 재활용 쓰레기통이 설치되지 않아 분리수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모든 쓰레기는 재활용 분류 없이 파란 플라스틱 쓰레기통 한 곳에 버려져 처리되는 상황이다. 재학생 A 씨는 “교내 건물에는 분리수거함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며 “학생들이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 분리수거되는 건지 항상 신경쓰였다”고 말했다.

유일하게 청운관에는 각 층마다 분리수거함이 마련돼 있지만, 캔·병류와 폐지류 두 종류만 나뉘어 있어 세분화된 분리수거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청운관 각 층 쓰레기통에는 플라스틱 테이크

아웃용 컵과 페트병이 캔·병류 및 폐지류 재활용 쓰레기통에 산발적으로 버려져 있었다. 청운관에서 만난 재학생 B 씨는 “쓰레기통에 적혀있지 않은 일반 쓰레기나 비닐 등은 어느 쪽에 버려야 할지 모를 때가 많다”며 “결국 둘 중 아무 곳이나 버리게 되니 점점 쓰레기통 구별에 의미를 두지 않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예 쓰레기통이 존재하지 않는 건물도 있다. 스페이스21 건물의 1층 복도에는 쓰레기통을 찾아볼 수 없다. 다른 층에도 정수기 옆 작은 쓰레기통 하나가 있을 뿐이다. 쓰레기통을 찾는 기자의 질문에 학생들은 화장실에 가서 쓰레기를 버린다고 말했다. 실제로 스페이스21 화장실 쓰레기통에는 휴지와 함께 먹다 남은 커피가 담긴 일회용 컵, 커다란 폐지박스가 함께 버려져 있었다. 교내 생활폐기물 처리를 담당

하고 있는 임용식 씨는 “교내 조경을 위해 학교 측에서 신축 건물에는 복도에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배달 음식 횡수가 늘어나면서 음식 쓰레기에 관한 문제도 등장하고 있다. 현재 행복기숙사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음식물쓰레기통이 설치되어있지 않다. 결국 배달음식 잔반은 배달용기와 함께 일반 쓰레기로 분류돼 버려지고 있다. 구분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를 분류하는 작업은 고스란히 청소노동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문과대 담당 청소노동자 C씨는 “커피와 같은 액체류는 그래도 수거 과정에서 일일이 분리해서

버리면 되지만 음식물은 그대로 폐기물 처리장으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임 씨는 “코로나 이후 쓰레기장에 올라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정말 많아졌다”며 “전부 하나씩 뚜껑을 열어 음식물 쓰레기를 구별하는 작업을 한다”고 말했다. 또 임 씨는 “음식물 쓰레기양이 늘어 생활폐기물 처리장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를 따로 붙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미흡한 분리수거는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교내 쓰레기통에 모인 온갖 생활폐기물은 청소노동자의 손을 거친 후 미술대학 뒤편에 위치한 폐기물 수거장으로 모인다. 이 과정에서 라벨이 떼어지지

않은 페트병이나 씻기지 않은 플라스틱 용기는 일일이 처리할 수도 없어 전부 일반쓰레기로 분류된다. 폐기물 처리를 총괄하고 있는 임용식 씨는 “일반쓰레기로 처리되는 쓰레기양이 많아 비용도 많이 나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 씨는 “수거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간단한 분류밖에 할 수 없다”며 “세부적인 분리수거가 된 채 (쓰레기가) 들어온다면 인력도 줄이고 재활용률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 측도 쓰레기 문제는 인식하고 있다. 서울캠 관리팀 측은 “학생들로부터 분리수거 시설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분리수거 문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불명확하게 분류돼 있는 분리수거함을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로 나눠 단순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그린캠퍼스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대는 자체적으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 분리배출 활성화와 안내를 위해 폐기물 재활용 부스 ‘그린캠퍼스 새싹이’를 설치했다. 이는 플라스틱, 종이, 유리 등을 세분화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분리수거 시설이다. 한쪽에는 플라스틱을 씻어서 버릴 수 있도록 세척 시설까지 설치돼 있다.

더불어 서울대에서는 배달음식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학교와 건물 사용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합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배달음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관리직 직원과 간담회를 진행해 학생들에게 배달음식 쓰레기 처리 규칙을 안내한 바 있다. 또 지난 5월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가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건물 내부 배달음식 쓰레기 처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학교 관리팀은 “오래전부터 관련 논의가 이어져오고 있지만 제반 상황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개선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청소노동자는 관리팀이 아닌 총무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팀이 관련 사항에 개선을 위해서는 타 부서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리팀은 “지금은 교내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집중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쓰레기통 수를 추가하거나 봉투 양식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폐기물 수거장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확인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거친다. (사진=이봄 기자)